

데스크 시국



임동욱
선임기자 겸 서울취재본부장

새로운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오는 29일)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최대 축제를 앞둔 여권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에 역대급 수혜까지 겹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1%, 통합당은 34.6%로 두 당의 격차는 0.5%p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도 호남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통합당이 뒤졌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3.9%, 부정 평가는 52.4%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 대권·당권 주장인 이낙연 의원 진영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의 지지율이 문재인

시험대 오른 이낙연 리더십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과 일정 부분 연동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는 이 의원의 '대세론'은 아직 유효한 상황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 5일 발표한 민주당 당권 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는 이낙연 후보 69%, 박주민 후보 14%, 김부겸 후보 11%로 나타났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지만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당 내외의 평가다.

'어대낙' 그리고 '이대만'

하지만 대선 주자로서의 이 의원 지지율은 3개월 이상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지난 4월 40%대를 돌파했던 이 의원의 지지율은 최근 20% 중반까지 급락했다. 지난 4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낙연 의원은 25.6%를 기록했다. 반면, 대법에서 무죄 취지 피기환송 결정을 얻어 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6%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에 근접하면서 이 의원을 맹추격하고 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이낙연 의원이 '이대만' (이대로 대표만)으로 끝나지 않

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권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됐든 이 의원이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당장이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 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당의 변화와 정권 재창출의 비전을 통해 압도적 지지를 얻어 내야 당을 확실히 끌고 나갈 동력이 마련되는 한편 지지율 상승의 계기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결국 대표에 선출된다 하더라도 현실은 만만치 않다. 국민적 관심이 크게 떨어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전대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올 하반기 민생 경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심의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 가치로 승부 걸어야

결국 위기 상황에서 당력을 결집하고 국론을 모으는 '위기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느냐가 이 의원의 대선 가도를 점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대선 후보 당직 사퇴 시한인 내년 3월 전까지 6개월 동안 '이낙연의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의원의 앞에는 수도룩한 난제가 놓여 있다. 우선 '이낙연의 시간'은 정국 주도권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압승을 견인한 상황에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또 당의 최대 주주인 친문(친 문재인) 세력도 어찌 보면 현실적인 장벽이다. 심부름 차별하는 친문 진영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감한 '도전과 응전' 없이는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 대세론에 안주하되 미래 가치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는 당내 진영을 넘어서고 지역주의 굴레인 '호남 프레임'을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의원 자신부터 변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엄중낙연'의 과거·관리형 이미지에서 벗어나 각종 현안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세력을 주변에 발탁하고 20·30대 세대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도 그가 갖춰야 할 필수 조건이다. 모든 것을 꼼꼼히 챙기는 만기친람형에서 한발 물러서 신뢰의 여백을 두는 것도 과제다.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

대선에 낫같은 없다. 대선 가도는 피와 땀과 눈물의 장정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험한 길을 걸었다. 이 의원이 과연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해 당권 경쟁에서 승리한 뒤 대선장에 성공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 호남 민심은 기대와 우려 속에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은펜칼럼



고성희
시인

박원순의 시대가 저물었다. 그가 행한 것들까지 함께. 그의 죽음은 벼락같이 앞전이 온 듯 했다. 마음을 다해 애도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 망한 채 그의 죽음을 맞았다. 아했거나 그는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온 몸을 내던진 노무현, 노회찬과 달리 시대의 진정성에서 가장 낡은 이유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됐다. 나는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오래 곱씹다가 문득 내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삶의 무게를 가능했다.

한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팔십육세로 생애를 마감했다. 생각해 보건대 단 한 번도 신문엔 나적 없었고 군수는 커녕 면장으로부터도 상을 받아 보지 못했다. '연산'이라는 어느 지역으로부터 시집을

삶의 무게

와 그날부터 평생을 화순군 춘양면 시골 마을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할머니. 어떤 날은 어느 자식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어떤 날은 다른 자식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때문에 상처받아 앓아누웠고, 또 어떤 날은 어쩌다 들려오는 기쁜 소식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평생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일했고 아끼느라 마음껏 전기 한 등 밝히지 않고 살았다. 마치 내 어머니처럼. 나는 문득 그녀의 삶이 내가 그토록 사랑한 노무현과 노회찬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생각이 고개를 끄덕였다. 희생으로 살아온 이 땅의 어머니들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워 저울에 올릴 수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내게 많은 것을 주고 가셨다. 내가 없는 사이 텃밭 가에 옥수수도 종을 심어놓고 가셨다. 된장과 집장을 주시고 콩 씨를 건네셨다. 우연히 만난 우리 부부의 손목을 끌고 부엌으로 들어가 커피를 타 주시기도 했다. 부뚜막이 주던 따뜻한 위로가 지금껏 가슴을 적신다. 마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안타까움을 주셨다. 돌이켜보면 할머니는 십육년 전 저 세상으로 가신 어머니의 현신이었다.

큰 자식을 갑작스럽게 잃고 마치 폭우에 쓸려나간 축대처럼 패인 할머니의 얼굴을 보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그립다. 며칠씩 앓고 난 뒤 누웠던 모양대로 외출했던 할머니의 한쪽으로 쏠렸던 하얗게 섰 머리가, 평생의 노동으로 굵은 손가락 끝과 굳어 버린 손가락 마디까지 그립고, 어서 올라가, 라고 말하던 눈웃음까지 그립다. 평소 불편한 데가 없어 보이던 할머니는 지병인 협착으로 떨어져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노제를 지내러 온 영구차를 본 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빈센트 반 고흐(1853~1890)는 19세기 후반 후기 인상주의 화가로 책방 점원과 선교사 등으로 살다가 스물여덟에 그림을 그렸고 서른일곱의 나이로 죽었다. 그가 살아 있을 때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는 늘 중실에서 서지 못한 아웃사이더였고, 정신분열 증세까지 있는 무명화가로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다가 생을 마감했다. 고흐는 죽기 직전 병원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림을 그렸다. 노란색 별과 달이 물결처럼 빛을 뿜고 검은 망토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사이

프러스 나무와 어둠에 싸인 마을. 그의 소용돌이치는 감정과 충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로부터 팔십 년 뒤 미국의 가수 돈 맥클린은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고흐의 작품 '별이 빛나는 밤에'(The Starry Night)를 생각하며 '별이 빛나는 밤, 밝게 활활 타오르는 불꽃들, 보랏빛 실안개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구름들이 푸른 색 빈센트의 눈에 비쳐 보이네요'라는 가사의 '빈센트'(Vincent)를 만들었다. 나는 다시 그로부터 오십 년 뒤 숲속에서 그 노래를 들으며 빈센트 반 고흐와 할머니의 생애를 가능하다. 모두 죽고 모두 사라지는 삶. 남는 건 기억뿐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난 5월에 가신 할머니 맥의 단란 문에 채송화도, 꽃잔디도 아닌 이름 모를 붉은 꽃이 사그라지고 있다. 이제 막 빈 봉선화는 그 옆에 수긋하게 서 있다. 누구에게나 평생은 있고 그 평생은 다른 어떤 누구의 평생에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세상이 아름다운 것이니 나도 부디 내 뒤로 오는 누구의 '할머니'로 남을 수 있을 뿐겠다.

기고

통일·안보팀 개각에 거는 평화 비전

하고 냉혹한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역사적 배경, 복잡한 국제정세, 이런 것들이 얽혀서 언제라도 피를 보아야 끝이 날, 폭발 직전의 화약고처럼 된 이 땅에서도 우리는 평화 통일의 비전을 버리지 못한다. 현실이 절박해져 갈수록 그 염원은 절실하다.

이런 때 8·15 선언, 선의의 경쟁 제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얼마 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 통일의 이상을 버릴 수 없다. 현실적으로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차선의 결과가 된다면 유감이지만 평화 통일의 이상으로 가는 길이 된다면 단계적 해결의 모색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세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당한 사명이나 전담해야 할 케리그마(kerygma)는 바로 화해다. 세계의 이성이 냉전의 긴장을 풀고 대화와 공존을 모색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전진해

야했다. 화해를 전하는 증언은 환상의 평화를 잠꼬대처럼 전하는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니다. 화해·평화·자유·통일은 역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의하여 선포되고 성취되는 법이다. 필자는 화해만이 평화 통일이라는 새나라 건설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법이라 믿는다.

평화 통일, 둘 사이의담을 무너뜨리고 하나 되게 노력하며 원수 된 것을 서로 해소시키는 일은 단순히 자연의 차원이 아닌 인간의 이치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삼차원에서 본 세계 인류의 문제라 하겠다. 화해는 무사주어나 안정을 위한 타협이 아니다. 실리를 위한 정치적 협상이 아니다. 서로 이해하도록 손잡고 한 피로 이어진 동족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써 이루는 자기희생을 통한 화해이다. 정복과 굴복, 승리와 패전에 의한 평화가 아니다.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비무력의 방법으로 성취되는 법과 정의, 평등과 사랑에 남북이 머리를 숙이고 손잡는 겸허한 동족 정신의 승리다. 화해란 하나 되게

하는 사랑의 투쟁이다. 세계 평화의 질서를 위한 파괴의 권세와 구조 약에 대한 투쟁이다. 남북 통일이나 동서 공존이나 자유와 공산, 민주와 독재보다 더한 양극의 세계가 역사 주관자의 통치 아래 평화 공존하는 세계의 비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와 통일에 관계되는 부서의 개각을 단행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종석 외교안보 특보 등 남북 관계를 이끌 최상의 팀이 조직됐다고 본다. 현실은 비판적이라고 할지라도 온 국민이 이사가 기본 평화 통일을 바라보자. 그리고 총력을 기울이자. 코로나19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일등 국가와 국민으로 등록됐다. 온 세계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 종말론적 역사에서 오직 화해의 신념으로 꾸준한 인내와 노력으로 조국의 앞날과 세계의 장래를 기대해 보자. 수난의 조국에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 화해의 노력이 승리하는 날, 조국의 통일도 세계 평화도 이룩될 것이다.

社說

지방 재난기금 '바닥'...정부 신속한 지원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재난 관리와 재해 구호를 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대부분 소진해 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폭우 피해 긴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는데, 어찌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광주가 500억 원, 전남은 28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피해 금액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 복구에 사용해야 할 재난 관리 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가 올해 적립한 기금은 1150억 원에 이르지만 코로나19 긴급 생계비 등에서 한발 물러서 신뢰의 여백을 두는 것도 과제다. 그래야 사람이 모인다. 대선에 낫같은 없다. 대선 가도는 피와 땀과 눈물의 장정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이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험한 길을 걸었다. 이 의원이 과연 위기의 리더십을 발휘해 당권 경쟁에서 승리한 뒤 대선장에 성공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인지? 호남 민심은 기대와 우려 속에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72년 만의 '여순사건' 조사 이번엔 제대로

1948년 여순사건 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전남도가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업무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는 '피해 유족 신고 창구'가 마련돼 오는 11월까지 신고 접수를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이다. 유족은 물론 경험자나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신고는 여순사건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보상이나 지원과는 무관하다.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을 기록으로 남겨 추후 국가 차원의 조사에 대비하고 역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진실 규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

기 적립한 304억 원 가운데 204억 원을 사용했고, 그나마 남은 100억 원 중 99억 원은 법정 의무 예치금이어서 가용 기금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재민 지원에 쓰일 재해 구호 기금도 전남도는 올 상반기 363억 원을 적립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359억 원을 집행해 잔액은 3억여 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예산 부족 상황을 타개하려면 시도가 이미 정부에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럴 경우 복구비의 50%만 지원되는 국비 지원이 최고 80%까지 가능해져 피해 복구비 마련에 승승이 트일 수 있다. 그렇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 지원은 공공시설 복구에 집중되고 민간 부문은 사실상 힘든 만큼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정치권은 또한 이번 호우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해 추경 편성으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기 위한 목적도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은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 공동 발의와 총 152명의 의원 찬성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특별법안에는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순사건 피해 조사는 전남도가 1949년 조사에 나서 그해 11월 희생자 숫자를 1만1131명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현재 관련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피해 조사가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우선 11월까지로 한정된 조사 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유족이 자발적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여순사건 피해 유족들은 지금까지도 '레드 콤플렉스'에 의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無等鼓

'채근담'에는 '대인존봉 자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이란 말이 나온다.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과 같이 부드럽게 하고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줄여서 '춘풍추상'(春風秋霜)이라고 한다.

(故) 신영복 교수는 '담론'이란 책에서 자신이 체험한 춘풍추상의 사례를 소개한다. 대전교도소 수감 시절, 화장실이 따로 없어 임시 변소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문짝과 문틀이 맞지 않아 문을 여닫을 때 소리가 크게 났다. 그래서 소리에 민감한 야간에는 더 조심해야 했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춘풍추상

명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행동을 보면서 불가피한 사연을 헤아리게 됐다고 한다. 비로소 '춘풍추상'의 의미를 실천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2월 청와대 비서관실에 신 교수가 쓴 '춘풍추상' 액자를 선물했다. 임기 2년차를 맞아 초심을 잃지 말자는 취지였다. 이 액자는 원래 신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것인데, 문 대통령이 이 글귀를 좋아해 어렵게 사본을 구해 선물한 것이다. 이후 '춘풍추상'은 문재인 정부를 대

표하는 모토가 됐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1월 취임 당시 이 액자를 가리키면서 비서관들과 다짐을 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춘풍추상을 강조했다.

요즘 현 정부 관리들이 춘풍추상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부동산 처분 대신 직을 버리는 행태에 춘풍추상이 아니라 '내로남불'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한다. 지도층에 필요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톨레랑스'(관용의 정신) 아닐까. /정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양홍
목사·시인

사람은 역사 속에 살면서 세 역사 창조자의 사명을 담당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가혹한 현실의 비관적 상황 아래서도 새 세계 건설에 대한 희망은 끝내 버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전후하여 민족과 통일, 세계 인류 역사를 생각하게 된다. 분단된 국토, 이데올로기 투쟁, 6·25 동족상잔의 비극, 그보다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될지 모르는 절박한 현실에서 민족의 장래는 과거보다 더 긴장과 불안을 던져 주고 있다.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국제 정세가 빚어낸 타율에 의한 불행한 국운이었는데 지금은 엄연